濟大新報

發行所 濟大新報社
濟州市龍潭2洞581
電話 ⑨2125-7
우편번호 590

發行編輯兼印刷人 辺時敏
主幹 梁澤珉
編輯長 申德一

印刷：濟州新聞社
濟州市一徒一洞1280
電話 ⑨3536

學訓

1. 誠實性
2. 自律性
3. 實踐性
4. 敬愛

한마디

인간의 행복은 이 기심을 만든다.
—플스도이—

제3대 學徒護國團幹部任命

聯隊長에 咸璟泰 副聯隊長에 金京洙

○…제3대 濟州大學 學徒護國團 幹部가 임명됐다。童貞을 맡게 된 新任 聯隊長은 咸璟泰…○
○…秦(관광·3)군이며 副聯隊長에는 金京洙(중식·3)군이고 각 部長과 隊大隊長 및 다…○
○…식·3)군이고 각 部長과 隊大隊長 및 聯隊長은…○
○…른 간부들도 임명됐다。新任 咸 文化活動을…○
○…새로운 學風의 조성에 힘쓰고 …○
○…활발히하겠다고 밝혔다。

<함 경 태君>

<김 경 수君>

新舊幹部交替式

지난 9월9일 본대학 小會議室에서는 학생과장 및 舊幹部와 新任幹部 부장급 이상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新舊幹部交替式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辺學長은 訓示를 통해 「創造的인 知識과 運營의 妙를 발휘하여 대학과 국가사회에 기여하는 인간이 되라」고 당부하고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학생과의 대화의 길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있은 新舊幹部 座談會에서 전연대장고 하고, 신임 연대장은 「작은 일부터 힘쓰며 무히 학생들의 文化活動을 중심으로 호국단운동을 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형옥學部長의 主宰 會議는 박정식敎學課長을 비롯하여 幹部學生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약 2시간동안 進行되었다。

이날 金學部長은 訓示를 통해 勉學熱이 더 高潮되는데 대해 찬사를 아끼지 않으면서 敎授가 學生間의 礼節關係 캠퍼스美化協調 等을 통한 自我成長에 一層 努力을 강조하였는데 이날 會議에서는 학생들의 勉學氣風確立 學內의 礼節遵守 校內環境淨化 各種集會事前申告履行 行事自進參与 그리고 장발등의 퇴폐풍조일소 및 勉學에 專念하는 학생들의 努力을 傾注할 것을 당부하였다。

農水産學部幹部會議가져

後學期 開講과 더불어 高潮되는 勉學熱의 雰囲気속에 農水産學部에서는 9月30日 農水産學部 學徒護國團幹部를 비롯한 各科團代表者會議가 農水産學部図書室에서 열렸다。

김형옥學部長의 主宰 會議에 열린 이날 會議는 박정식敎學課長을 비롯하여 幹部學生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약 2시간동안 進行되었다。

이날 金學部長은 訓示를 통해 勉學熱이 더 高潮되는데 대해 찬사를 아끼지 않으면서 敎授가 學生間의 礼節關係 캠퍼스美化協調 等을 통한 自我成長에 一層 努力을 강조하였는데 이날 會議에서는 학생들의 勉學氣風確立 學內의 礼節遵守 校內環境淨化 各種集會事前申告履行 行事自進參与 그리고 장발등의 퇴폐풍조일소 및 勉學에 專念하는 학생들의 努力을 傾注할 것을 당부하였다。

장학금受惠者발표

—2백8명에 1천2백60만원—

전체학생의 15%

77학년도 제2학기장학생이 선정 발표되었다。

교내·외장학생을 포함하여 장학금 혜택을 받는 수는 모두 2백8명에 이르는데 이중 5·16장학금을 비롯한 육영수여사추모장학회, 운정장학금등을 받는 교외·장학생이 42명, 교내장학생이 1백29명, 극빈자장학생수가 35명이다。이들이 받는 장학금 총액은 교외의 장학생이 4백60만원 교내장학생이 수업료면제 혜택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8백여만원에 이른다。이번 발표된 장학금과 수혜자는 다음과 같다。

◇교외장학생

▲5·16장학금
김학량(농화4)이창림(축산3)김봉찬(농화2)김순희(과교2)김용(중식2)各20만원。

▲산학협동재단장학금
홍창표(행정4)15만원

▲우월장학회장학금
송경희(영교3)15만원

▲해성문화재단장학금
진창남(행정2)김평길(원예4)오성종(축산4)박천식(과교1)김상우(식품1)各12만5천원

▲제주도장학재단장학금
정군찬(원예4)김대홍(관광2)김동후(축산3)현용종(중식3)(교육실(가정3)조연숙(미교4)허영홍(체교4)현영남(체교2)김경순(영교4)김경순(영교1)이진희(국어1)고창근(영교4)김경순(영교1)이인순(수교3)문대영(행정4)부남호(경영2)허정분(식물3)各6만원。

▲운경장학재단장학금
양성기(어로4)이광일(원예4)김창전(과교3)各15만원。

▲한국장학재단장학금
김종훈(영교4)이금회(원예4)各12만5천원。

▲육영수여사추모사업회장학금
이숙자(경영4)문대상원
이성남(경영4)문대상원
김영환△2년=김광호
김영조 송성준 홍순
성정△3년=이남진
종범△4년=김계서 강
식품공학과△3년=김영동△3
오화=최상범 김인환 정
허법민 정
△1년=강권익
△2년=조은삼 이경배 박
△2년=강병준 김대환 박
3년=강병준 김대환 박
진조△4년, 김회정 최
광호 김수구 신종암
△2년=김찬 김영우 신종천
재진△3년=노승호▲증
길현△4년=노승호▲증
식학과△1년=강권익
△2년=김상택 이경배 박
△2년=김상택 이경배 박
3년=김상택 이경배 박
△2년=김상택 이경배 박
3년=김상택 이경배 박
△2년=김상택 이경배 박
3

濟州島家族類型의 特性

濟州島學定立을 爲한 特輯시리즈

하나의 共同住居空間속에 두개以上의 經濟單位生活

1、家族의 兩面性

①、家族의 要件

家族은 社會集團의 最小單位임은 말할것도 없다。 흔히 가족을 규정할때 (1)住居는 共同으로 하는 生活共同体로 (2)生産, 消費의 共同經濟單位로 (3)夫婦 및 그 血緣關係의 集團을 (4)家族이 生活하니, 아 要件으로 삼는다。

②、對內家族과 對外家族

家族調査를 할 때 戶籍名簿나 住民登錄카드를 복사하여 利用하

2、家族類型

濟州島의 家族은 公簿上에 登錄된 對外的인 實際 家族의 關係가 어떤 樣相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이제 濟州部落의 事例를 通하여 그 關係를 理解하고 家族의 類型을 把握해 보기로 한다。

①、濟州市 老衡洞 廣坪部落

濟州市 老衡洞 廣坪部落은 濟州市內에서 約5㎞ 떨어진

玄容駿 (國語敎育·副敎授)

濟州島學定立을 爲한 特輯시리즈

本誌에서는 開校25周年紀念 濟州島學定立을 위한 特輯시리즈를 마련했읍니다。 本大學 敎授와 斯界에 권위있는 전문가의 논문으로 연재되는 독자들의 많은 호응이 있으리라 믿읍니다。 아울러 다음과 같이 원고를 접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歷史 …… 金宗藻 교수
2. 言語 …… 玄平孝 교수
3. 社會構造및 特質 …… 玄容駿 교수
4. 通過儀礼 …… 金榮敦 교수
5. 歲時風俗 …… 秦聖麒 교수
6. 文化財 …… 洪淳昶 선생
7. 旅配文學 …… 梁琦承 교수
8. 信仰 …… 玄容駿 교수
9. 民謠 …… 玄敦容 교수
10. 座談(濟州島學 研究의 필요성과 課題) …… 金榮敦 교수

1977년 5월 일

제 대 신 보 사

勉學과 禮節의 調和

秋分이면 주야가 똑같이 되고 그 이튿날부터는 밤이 차차 길어가고 冬至에는 밤이 한껏 길어질 것이다。 자연은 이렇게 끊임없이 循環하고 無涯하다。 인류는 이 무한한 진리를 터득하기 위하여 삶의 情熱을 불태우며 歷史를 창조해왔다。 그렇다! 이 삶의 정연이야말로 금세기 최대의 정신문명과 과학문명을 일깨워준 원동력이었을 것일진대 그의 根柢에는 깨기찬 대학의 역할도 검히 무시하지는 못할 것이다。 특히 이 가을은 일반 사회에서는 물론 역시 대학에서도 결실의 계절이라 우리는 뭔가 축적해 놓아야겠다는 사명감에 불타 오른다。

일찌기 莊子는 다음과 같이 계시하여 「吾生世有涯하나 而知也無涯라。 以有涯로 殆已(危)요 已而爲知者 殆而已矣라」(養生主) 말한 바 있다。 이처럼 대학인도 이 말의 참뜻을 이해할 수 있다면 무한한 학문과 진리 앞에 우리의 자세를 올바르게 고쳐 서야 할 것이다。 학문과 진리의 대육부자는 물론 20년이라는 세월이 소요되거늘 한 사람의 대학교수가 박중한 투자와 시일이 소요된다는 것이 결코 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대학교육은 이와같이 학문과 진리의 무·하루 아침에 빛을 볼 수도 없으려니와 교육의 成敗 또한 신사리 평가할 수도 없는 것이다。 교육의 성패를 신사리 단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해도 본대학은 작금에 와서 종래 볼 수 없던 학사행정의 능률화와 96%가 되는 학생들의 출석율 도서관 이용자의 증대 등, 이론바 학풍조성과 면학분위기의 조성은 자타가 공인하는 교육적 성과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교육적 성과의 바탕위에 이제 창의적 가치의 세계를 지향하기 위하여 본대학 학도호국단에서는 ㅅ예절 속에 재대생의 품위를 지키자ㅅ라는 캠페인을 거교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西洋의 格言에ㅅ인생은 늘 예의 있어야 한다ㅅ고 한 말이 있다。 論語에도 ㅅ몸을 공손히 하여 예의에 어그러지지 않으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치욕이나 지탄을 받지 않는다ㅅ(恭近於礼遠恥辱)라 했다。 이는 인생에 있어서 내적 충실을 기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번 예절 캠페인은 그 자체로 끝나서는 아니 된다。 이것은 마땅히 자기 몸을 품위있고 바르게 닦아야 하는 실천생활의 덕육이 되어야할 것이다。 우리들 대학인이 다같이 예절 속에서 스스로의 큰 틀을 갖추고 나아갈 때 우리의 대학 교육이 사회의 발전과 변천 과정에서 결코 고립되지 않고 사회적 존재이기에 대학사회는 물론 일반사회와도 유기적으로 융합하여 명랑한 분위기가 이룩되어 나아갈 것으로 믿는다。

학문과 진리의 무애함을 자각하여 면학에 한층더 정진하면서 한편으로 예절을 갖출 때 비로소 우리는 꽃의 빛이나 향기를 해치지 않고 오직 꿀을 앗아가는 벌, 나비처럼 지혜있는 대학인이 되어 이 가을도 깊어가기 전에 먼 행경에 나서게 된 것(如蜂集華 不媱色香 但取味去 仁入聚然。法句經)이라고 생각한다。

스스로 얼마나 예절 속에 살아왔는가 반성있길 촉구해마지 않는다。 그리하여 면학과 예절의 조화를 생활화하는데 계속 정진하기를 당부해마지 않는다。

이 소요된다。

이른바 대학인의 양성은 곧 그 나라와 민족의 인재를 길러내는 것을 의미하지만 대학교육의 성과는 이 가을 품위있고 바르게 닦아야 하는 실천생활의 덕육이 되어야할 것이다。 우리들 대학인이 다같이 예절 속에서 스스로의 큰 틀을 갖추고 나아갈 때 우리의 대학 교육이 사회의 발전과 변천 과정에서 결코 고립되지 않고 사회적 존재이기에 대학사회는 물론 일반사회와도 유기적으로 융합하여 명랑한 분위기가 이룩되어 나아갈 것으로 믿는다。

학문과 진리의 무애함을 자각하여 면학에 한층더 정진하면서 한편으로 예절을 갖출 때 비로소 우리는 꽃의 빛이나 향기를 해치지 않고 오직 꿀을 앗아가는 벌, 나비처럼 지혜있는 대학인이 되어 이 가을도 깊어가기 전에 먼 행경에 나서게 된 것(如蜂集華 不媱色香 但取味去 仁入聚然。法句經)이라고 생각한다。

스스로 얼마나 예절 속에 살아왔는가 반성있길 촉구해마지 않는다。 그리하여 면학과 예절의 조화를 생활화하는데 계속 정진하기를 당부해마지 않는다。

이런바 대학인의 양성은 곧 그 나라와 민족의 인재를 길러내는 것을 의미하지만 대학교육의 성과는 이 가을 품위있고 바르게 닦아야 하는 실천생활의 덕육이 되어야할 것이다。 우리들 대학인이 다같이 예절 속에서 스스로의 큰 틀을 갖추고 나아갈 때 우리의 대학 교육이 사회의 발전과 변천 과정에서 결코 고립되지 않고 사회적 존재이기에 대학사회는 물론 일반사회와도 유기적으로 융합하여 명랑한 분위기가 이룩되어 나아갈 것으로 믿는다。

학문과 진리의 무애함을 자각하여 면학에 한층더 정진하면서 한편으로 예절을 갖출 때 비로소 우리는 꽃의 빛이나 향기를 해치지 않고 오직 꿀을 앗아가는 벌, 나비처럼 지혜있는 대학인이 되어 이 가을도 깊어가기 전에 먼 행경에 나서게 된 것(如蜂集華 不媱色香 但取味去 仁入聚然。法句經)이라고 생각한다。

스스로 얼마나 예절 속에 살아왔는가 반성있길 촉구해마지 않는다。 그리하여 면학과 예절의 조화를 생활화하는데 계속 정진하기를 당부해마지 않는다。

이런 예절 속에서 재대생의 품위를 지키자ㅅ라는 캠페인을 거교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西洋의 格言에ㅅ인생은 늘 예의 있어야 한다ㅅ고 한 말이 있다。 論語에도 ㅅ몸을 공손히 하여 예의에 어그러지지 않으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치욕이나 지탄을 받지 않는다ㅅ(恭近於礼遠恥辱)라 했다。 이는 인생에 있어서 내적 충실을 기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번 예절 캠페인은 그 자체로 끝나서는 아니 된다。 이것은 마땅히 자기 몸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것 헛되다

(구약전도서 1장2절)

申必鉉敎授를 追慕함

선생님!

이 어찌된 일입니까? 9월21일 돌째시간 강의중 갑자기 쓰러지신 선생님을 가슴이 철렁내려 앉고 어찌할 바를 몰라 얼마나 당황하였는지 모릅니다. 지난 8월 중순에 서울서 뵈올 때는 그토록 온화하신 안색이셔서 원기나 학생들과 더불어 다시 뵈올까 하고 있던차에 너무나 뜻밖의 소식 전해지니 인생이란 이렇게 헛되것인가를 뼈에 사무치게 느껴집니다.

선생님! 다시 건강하신 모습으로 강단에 서셔서 명강의를 하실 선생님을 가다리는 저희에게 이 무슨 슬픔을 남기고 혼자서 편안한곳으로 가시는 것입니까? 묘앞에서 몸부림치며 통곡하시던 사모님과 자녀들, 일가친척과 동료, 후배들을 천신만고 하셔서 키우고 가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제 생시에 말씀하시던 그 욱한 향기를 저희는 믿을 수가 없읍니다. 이제 주신 교직에 몸담으신지 32개성상에 강직과 청렴결백으로서 이 난세를 당하지 못하시어 자책하나없이 가셨지만, 그 강직과 과감한 판단력이 언제나 저희들 오셨읍니다.

무변제로 선생님의 학문적 업적을 돌고자 합니다. 초기에 황무지같던 시골가공분야에 고군분투하시던 선생님의 모습 저희는 잊읍니다. 가시는 곳마다 지방민을 일깨우시고 그 지방의 특산물의 가공, 이용에 관심을 가지시고 최근까지 연구에 몰두하시던 선생님의 학구적 자세에 저희는 언제나 뒤전채 따라갈 길입니다.

세계로 저희는 선생님의 용기를 배양하시고 몇년전 시설을 시작했다고 상경하시던 때 발성한 선생님의 50이 넘은 연세로써 기술사 단 한번 낙방하신 선생님의 끊임없는 도전과 용기의 사람을 보아왔읍니다. 선생님께서 어디다 헤아릴수가 있겠읍니까만 짧은 기면에서 마지막으로 독실한 친구로써 보여주신 그 진지하고 신실하신 신앙이야말로 저희가 가장 중하게 간직해야할 일생의 교훈이 아닐 수 없읍니다. 나그네 인생길 그렇되고 헛된 인간사에 의미를 주며 내세의 소망과 낙원에서 영원히 살길을 열어주는 믿음으로 몸소 앞서가시던 경건하신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는 처세술이나 학문적방법이 아닌 또하나의 유훈을 본받고자 합니다. 살아생전에 행하였던 행위로 인하여 구원을 얻는다면 어느 누가 구원에 이르겠읍는까!

「너희가 이 예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8절)라고 에베소 사람들에게 믿음을 강조하던 바울을 선생님의 굳은신앙의 지조안에서 보는듯합니다. 참으로 학문으로부터 신앙과 자녀양육에 허리띠를 졸라메시며 이 제주에오신 70년대엔 미련한 저희후배들을 일깨우시고 대학과 학과를 일깨우시고 제자들의 달진을 위해 애쓰시다 하시던 연구의 길과도 못보신채 태산같은 할 일을 남기시고 가신, 애처롭고 아쉽기만한 일생을 걸으신 선생님이시어! 저희가 무엇을 가지고 선생님을 위로 하리고자 찬송과 위로의 인도 하는 좋은 길잡이를 만나소서! 어느 곳에서 가시는 곳 저희도 그곳 저희들 때까지 이방에서 고이 잠드소서!

1977년9월 마지막날

제자 許宗和 哭拜

(식품공학·전강)

헛되고 헛되니 모든것 헛되다

선생님!

9월21일 돌째시간 강의중 갑자기 쓰러지신 선생님을 가슴이 철렁내려 앉고 어찌할 바를 몰라 얼마나 당황하였는지 모릅니다. 지난 8월 중순에 서울서 뵈올 때는 그토록 온화하신 안색이셔서 원기나 학생들과 더불어 다시 뵈올까 하고 있던차에 너무나 뜻밖의 소식 전해지니 인생이란 이렇게 헛되것인가를 뼈에 사무치게 느껴집니다.

선생님! 다시 건강하신 모습으로 강단에 서셔서 명강의를 하실 선생님을 가다리는 저희에게 이 무슨 슬픔을 남기고 혼자서 편안한곳으로 가시는 것입니까? 묘앞에서 몸부림치며 통곡하시던 사모님과 자녀들, 일가친척과 동료, 후배들을 천신만고 하셔서 키우고 가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제 생시에 말씀하시던 그 욱한 향기를 저희는 믿을 수가 없읍니다. 이제는 인생의 그 욱한 향기를 저희는 믿을 수가 없읍니다.

육사일과 자녀양육에 허리띠를 졸라메시며 이 제주에오신 70년대엔 미련한 저희후배들을 일깨우시고 대학과 학과를 일깨우시고 제자들의 달진을 위해 애쓰시다 하시던 연구의 길과도 못보신채 태산같은 할 일을 남기시고 가신, 애처롭고 아쉽기만한 일생을 걸으신 선생님이시어! 저희가 무엇을 가지고 선생님을 위로 하리고자 찬송과 위로의 인도 하는 좋은 길잡이를 만나소서! 어느 곳에서 가시는 곳 저희도 그곳 저희들 때까지 이방에서 고이 잠드소서!

1977년9월 마지막날

제자 許宗和 哭拜

(식품공학·전강)

特別寄稿

지금은 歷史의 轉換点

濟大人이여! 團結하자

姜君璜

(濟州文化社대표 前同窓會長)

◇머리글

濟州大學綜合캠퍼스가 드디어 着工됐다. 정말 歷史的인 瞬間의 가름 그것이었다.

지난 14일 상오 10시 快晴한 날씨를 맞아 盛大히 베풀어진 이날의 기공식에는 張日勳지사를 비롯한 각급 기관장 등 내빈 다수와 대학당국자들, 그리고 母校의 發展을 목마르게 바라는 同窓, 늘름한 기백의 數百 在學生들이 함께 자리해 大盛況을 이루었다.

久遠한 歷史에의 大躍進 그것이었다.

늦게나마 末席을 차지한 나는 25년전의 初創期 시절을 생각하며 가슴이 뭉클해짐을 뜨겁게 느꼈다.

◇광활한 땅… 30餘萬坪에

漢拏雄峰이 망망 大海를 굽어보는 드넓은 땅, 30万坪에 머지않아 기적이 이루어진다.

25년의 형극의 歷史와 伝統을 이어 이제 名實相符한 본도의 最高學府로 발돋움하는 濟州大學의 綜合移設工事는 지난 74년 부지매입으로부터 80년까지 7개년계획으로 完成된다는데 부지 30만8천4백60평에 총예산 46억3천만원이 투입되는 실로 놀라운 規模다.

55명을 위시해서 한성회관 연구소 하성기숙사 교육하부 농수산학부및 지역개발부 교양학부 그밖의 온갖 시설이 총건평 1만3천4백평에 들어서게된다. 이것은 실로 八공의 現實 歷史의 一大轉換点이 아닐 수 없다.

◇지금 바로 나아가자

濟大人이여! 團結하자. 지금 이 時点에서 누구의 힘을 탓할 것인가. 大學當局—在學生—同窓會 三位一体로 뭉치는 길만이 우리 大學이 사는 길이다. 그것만이 大學建設의 原動力이 될 것이다. 感情을 억누르고 理性으로 行動할 때가 바로 온 것이다.

누구의 잘 잘못을 가릴 것 없이 지금 이 時点을 始発点으로 해서 차곡차곡 歷史를 엮어 가자.

四反을 위해 平生을 살다 故 「내부」 首相은 이렇게 말했다.

「지금 바로 나아가라! 늦어진때 대한 弁明에나 아무런 興味도 없다.

나의 갈 길은 다만 하나! 成就되어야 할 일, 그것뿐이다.」

그렇다! 우리가 成就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곰곰히 생각을 거듭하고 深思熟考하여 그것이 우리 大學과 이 고장과 나아가서는 이 나라에 有益한 일이면 그것을 앞장서 하자.

辺時敏 現學長을 중심으로 굳게 뭉쳐 구성지게 前進하자!

◇目標…綜合大學校에의 昇格

文敎部는 지난22일 地方國立大學중 江原대학과 忠北대학 地方私立大學중 啓明학등 3개 단과대학을 78학년도부터 각각 종합대학교로 승격시킨다고 발표했다. 그렇게 되면 종합대학교가 하나도 없는 道는 본도뿐인 셈이다.

이번의 昇格은 종합대학교가 없는 道에 소재한 단과대학들로서 地域的인 배려와 종합대학으로서의 제가 갖추어졌다는 점 등을 考慮했다는 것인데 우리도 刻苦의 奮発로 綜合大學校에로의 昇格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여기에 바라기는 것도 亦是 團結 뿐이다.

二次大戰의 英雄「처칠」爵은 人間의 액체를 모두 祖國을 위해서 바치라고 외쳤다.

우리 濟大人들도 나같이 본대학을 위해서 피와 땀과 눈물을 뿌리자. 私心을 버리고 오로지 公益을 위해서 나를 犧牲하자.

歷史는 正義를 저버리지 않는 법— 「至誠이면 感天」이란 말은 東西古今을 통해서 眞理로 전해 온다.

우리 濟大人들은 歷史의 흐름을 똑바로 認識해서 서로 애끼며 이끌고 大學風土 創新에 迫力을 加하자. 歷史는 記錄해 가는 것이다. 아니라 創造해 가는 것이다.

—〈筆者略〉—

龍頭亭

歷史上 生長했던 文明을 30개로 나누어 그중 충분히 성장한 것이 21개였다고 하며 그 文明形態를 비교 분석하고 文明의 成長과 衰落 성장을 挑戰과 應戰의 原理로 설명했다. 그 文明形態를 비교하고 文明의 成長은 우리의 特色인 창조력과 문명을 退化 또는 解体케 하는 것이 된다고 한다.

그러므로 文明의 成長은 개인이나 小數 集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데 그들의 역할은 靈的인 지도를 받아 방송의 발전을 위한 것이니 피차 양보하여 서로 협조하고 한 일이 되고 만다. 아직도 그 모방성을, 의일 연구 결론부터 말하여 이 견해는 아무리 전개시켜나가고 있는 것이다.

社會價値의 靈的深化

送作家「韓談史」에서 「餘林의 비양도가 내 觀野에 들어 왔다. 섬에는 온통 油菜꽃이 滿発하고 있었다. 산중턱까지 유채꽃으로 뒤덮혀 있는 섬 그것은 정말 「꽃섬」이었다. 무더웠던 情緒가 한꺼번에 쩌어나오 듯, 나는 그 섬이 나의 觀野에서 점점 멀어질 때까지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있었다. 海岸에서 약2㎞의 거리에 하얀 모래사장 너머로 호수와 같은 바다를 사이에 두고 조용히 있는 섬, 거기에 온통 노란색으로 물들여진 모습은 정말 살아 있는 壁觀이었다. 그곳 住民들이 다지 所得을 위하여 심어 놓은 그 꽃들이 이렇게 感動을 줄 수가 있을까?

壁觀, 그것은 人工的이든, 自然的이든, 그것을 보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살아있는 壁觀이 되기도 하고 죽은 壁觀이 되기도 한다. 그것이 보는 이에게 어떤 意味를 갖고, 感興을 주었는 그대로 感動하지 못하고, 그것이 貨幣와 연결을 지을 때만 価値가 있는 것 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주어 심게 말하면 우리의 觀野에 들어오는 한폭의 그림같은 壁觀이 있을 때, 그것은 생생하게 우리의 마음에 파고 들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인다. 그것은 우리에게 할 수 없는 아름다운 추억을 남기기도 하며, 또 우리의 生을 살찌게 한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壁觀이라고 하더라도 「있는 그대로」를 感動하지 못하고, 그것이 貨幣와 연결을 지을 때만 価値가 있는 것 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주어 심게 말하면 우리의 觀野에 들어오는 한폭의 그림같은 壁觀이 있을 때, 그것은 생생하게 우리의 마음에 파고 들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인다. 그것은 우리에게 할 수 없는 아름다운 추억을 남기기도 하며, 또 우리의 生을 살찌게 한다.

自然 그대로의 壁觀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쏠모도 없고, 그것에 의해서 돈이 떨어지지만 있다고 생각하는 者들 때문에 아름다운 壁觀이 일다나 파괴되고 있는 것이다.

徐庚林

(관광개발·전강)

지난 5月초순 이른 아침, 나는 옛戰友들과 함께 싱그러운 바람을 마시면서 택시를 타고 餘林을 지나고 있었다. 그때 餘林의 비양도가 내 視野에 들어 왔다. 섬에는 온통 油菜꽃이 滿発하고 있었다. 산중턱까지 유채꽃으로 뒤덮혀 있는 섬 그것은 정말 「꽃섬」이었다. 무더웠던 情緒가 한꺼번에 쩌어나오 듯, 나는 그 섬이 나의 觀野에서 점점 멀어질 때까지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있었다. 그때 餘林의 비양도가 내 視野에 들어 왔다.

섬에는 온통 油菜꽃이 滿発하고 있었다. 산중턱까지 유채꽃으로 뒤덮혀 있는 섬 그것은 정말 「꽃섬」이었다. 무더웠던 情緒가 한꺼번에 쩌어나오 듯, 나는 그 섬이 나의 觀野에서 점점 멀어질 때까지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있었다. 그때 餘林의 비양도가 내 視野에 들어 왔다.

護國學徒像의 정립을

前聯隊長 고 창 근(영교·4)

作은일부터 충실할터

聯隊長 함 경 태(관광·3)

辭任就離 長隊長

吳 現道 著

播種時期에 따른 油菜의 主要形質이 生育과 收量에 미치는 影響

〈建國大學校〉

徐 庚林 著

株式會社 監査制度에 대한 法的考察

〈高麗大學校〉

金 惠淑 著

濟州道 家庭에서의 夫婦關係

〈誠信女子師範大學〉

李 淳珩 著

學校長의 指導性 行動에 대한 準據 集團의 理論과 評価

〈高麗大學校〉

高 承禧 著

研究開發費의 會計構造에 關한 考察

〈高麗大學校〉

金 秀吉 著

韓國 少年犯罪의 社會的 要因에 關한 調査研究

〈高麗大學校〉

康 太淑 著

國內 HOLSTEIN 牝牛의 繁植 및 産乳 能力에 關한 研究

〈建國大學校〉

尹 良洙 著

行政審判 制度에 關한 研究

〈高麗大學校〉

文 斗吉 著

CEPA가 담배잎의 成熟 및 ALKALOID含量에 미치는 影響

〈高麗大學校〉

다시 그 旗를

—에베레스트 登頂에 붙임—

許 尚 秀

이 기쁨을 겨레와 함께.
그 위대한 끈기를 모두에게 바친
자랑스러운 나의 형에게
어머님께.

오르려는 者에게 오르게 하는
그 무서운 執念을 밤새 이야기하자.
大韓의 사나이에게 동정을 허용한
이들도 어려운 그 女神에게 깊은 존경
을 드리면서.

영하 오십도의 맹한 風速은 여기보다 두
세倍 風力은 사, 육倍 산소는 3분의 1.
십한 脫水, 혼미해지는 느낌.
아무도 그곳의 어려움을 다 그려낼
수는 없다.
이미 우리는 감격하기 때문이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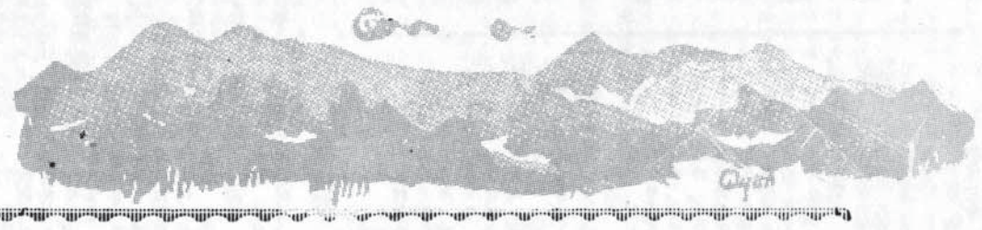
人이제 우려는 세계 제일의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 아, 날 것 같다. V

우리의 이름을 王이라 하자.
세가가 出家한 나이에
때묻지 않은 성역에 올라 선
이들을 王이라 하여 두자.

마지막 몇 걸음 옮기던 자리에
누이의 까아만 머리채를 그리고
어머님의 얼굴. 대장님의 말씀.
아니 어린 시절 島山을 바라보며 꿈을
꾸던 옛날을 상기했을 것이다.
아니 노산의 詩를,
그 성대할 귀향을 떠올렸는지도 모른다

우리는 이제 1950m의 意味를 읽어
낼 수 있다.
저 가을진 숲의 깊이를 이제는 재어볼
수 있다.
이제는 설악의 슬픔을 보상할 수 있고
그것이 낯선 우리의 망위에서 성육된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양코배기들아 들어라.
13번은 아제 惡運이 아니라는 걸.
日女여 이제는 그만 교만하여라.
네분의 故人은 凶事만을 부르지 않았다
는 걸,
北이여 들리는가. 귀먹은 채 하지마라.
눈조차 밀면 마음도 病드나니.
이제 우리는
또 하나의 준봉을 向해
힘찬 山사람의 氣魄과
그 굳센 몸으로 슬기를 사랑하고 詩를
읊고 論文을 쓰고 音樂을 하여야 하고
치열하게
성실하게
그리고 기어 올라
다시 그 旗를 2744m의 天池에 세
워야 하리라.



가림이

Oyun.

⑪

수필

우리들의 恨

김 은 숙 (원예·2)

K형!
「게모르게」의 頌歌를 사
랑했던 정열이 식어갑니다.
가능한 태연한 척하고
살아가려는 이 浮浪者와 같은
삶!
그나마 내 생애에 있
어서 남모르는 기쁨으로 모
든것을 사랑해왔읍니다. 과장
된 나의 변명일지 모르지만
하늘도 별도 구름도 강도 호
수도 낙엽도… 그리고 도회의
초저녁 거리의 화려한 음악
소리, 심지어는 실지로 보지
못한 것 조차, 높은 울타리
를 쳐 잡 손질된 관목들도 에
워싸인 붉은 기와지붕을 한
하고 있는 나로서는 인
남향집을 갖고 싶은 욕망까
지도 — 오랜 독신 생활로 인
해 성미가 까다로운 할아버
지의 눈을 피해 어디까지면
지금도 어디서 온듯한 오고
어 있는지 알수 없는 산마루
가는 얼굴들, 스스로 떠나게
의 개울소리에 밤해 진종일
끝까지를 누비던 일들, 더기
억할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동화책 표지에 있어서나 볼
수 있는 천민의 초원인 관
솔불같은 한 여름의 모닥불 —
어려서 행복하게 지냈던 장
소를 대하는 것과 같은 야
릇한 기대를 갖고 현실의 복
사판인 이미지를 얻어
왔읍니다.

정녕 원색인간이 되어가
고 있는 나로서, 내 따에 비
약적인 방법으로 사랑해버리
고 인간적인 착각으로 인해
지금도 어디서 온듯한 오고
얼굴들, 스스로 떠나게 되
는 責任에서 殺人女
는 심판대위에, TV
에서는 그 푸로그램
을 방영금지 시키고
급식제도를 폐지시킴
으로 모든 소란스런
일이 하루아침에 끝
난다고 믿고 있다.
우리는 이 殺人女로
심판하며 미워하기에
앞서 그녀를 그렇게
까지 하도록 만든 우
리社會의 責任을, T
V방영금지시키기 前
에 그 제작자들이 더
한번 어린이들을 위
한 생각을, 營利보다 어
른들이 사그러져 갔
다. 우리社會는 이 모
든 責任에서 殺人女
는 심판대위에, TV
에서는 그 푸로그램
을 방영금지 시키고
급식제도를 폐지시킴
으로 모든 소란스런
일이 하루아침에 끝
난다고 믿고 있다.
우리는 이 殺人女로
심판하며 미워하기에
앞서 그녀를 그렇게
까지 하도록 만든 우
리社會의 責任을, T
V방영금지시키기 前
에 그 제작자들이 더
한번 어린이들을 위
한 생각을, 營利보다 어
른들이 사그러져 갔
다. 우리社會는 이 모
든 責任에서 殺人女
는 심판대위에, TV
에서는 그 푸로그램
을 방영금지 시키고
급식제도를 폐지시킴
으로 모든 소란스런
일이 하루아침에 끝
난다고 믿고 있다.
우리는 이 殺人女로
심판하며 미워하기에
앞서 그녀를 그렇게
까지 하도록 만든 우
리社會의 責任을, T
V방영금지시키기 前
에 그 제작자들이 더
한번 어린이들을 위
한 생각을, 營利보다 어
른들이 사그러져 갔
다. 우리社會는 이 모
든 責任에서 殺人女
는 심판대위에, TV
에서는 그 푸로그램
을 방영금지 시키고
급식제도를 폐지시킴
으로 모든 소란스런
일이 하루아침에 끝
난다고 믿고 있다.
우리는 이 殺人女로
심판하며 미워하기에
앞서 그녀를 그렇게
까지 하도록 만든 우
리社會의 責任을, T
V방영금지시키기 前
에 그 제작자들이 더
한번 어린이들을 위
한 생각을, 營利보다 어
른들이 사그러져 갔
다. 우리社會는 이 모
든 責任에서 殺人女
는 심판대위에, TV
에서는 그 푸로그램
을 방영금지 시키고
급식제도를 폐지시킴
으로 모든 소란스런
일이 하루아침에 끝
난다고 믿고 있다.
우리는 이 殺人女로
심판하며 미워하기에
앞서 그녀를 그렇게
까지 하도록 만든 우
리社會의 責任을, T
V방영금지시키기 前
에 그 제작자들이 더
한번 어린이들을 위
한 생각을, 營利보다 어
른들이 사그러져 갔
다. 우리社會는 이 모
든 責任에서 殺人女

(농화학과 四年)

「바다의 침묵」

鄭漢淑(高大교수)

2차대전중 독일군 점령하의 파리에서 출판된 「십이의 총서」 첫번째 권인 이 책은 저항정신과 나치즘에 기만당한 독일군 장교가 겪는 정신적 갈등을 그린 현대를 사는 도시인에겐 「바다의 침묵」 처럼 신기하다. 포용력이 필요하다.

K兄!

나는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

고영철 (관광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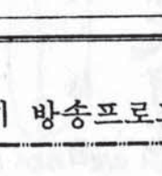
K형!
「게모르게」의 頌歌를 사
랑했던 정열이 식어갑니다.
가능한 태연한 척하고
살아가려는 이 浮浪者와 같은
삶!
그나마 내 생애에 있
어서 남모르는 기쁨으로 모
든것을 사랑해왔읍니다. 과장
된 나의 변명일지 모르지만
하늘도 별도 구름도 강도 호
수도 낙엽도… 그리고 도회의
초저녁 거리의 화려한 음악
소리, 심지어는 실지로 보지
못한 것 조차, 높은 울타리
를 쳐 잡 손질된 관목들도 에
워싸인 붉은 기와지붕을 한
하고 있는 나로서는 인
남향집을 갖고 싶은 욕망까
지도 — 오랜 독신 생활로 인
해 성미가 까다로운 할아버
지의 눈을 피해 어디까지면
지금도 어디서 온듯한 오고
어 있는지 알수 없는 산마루
가는 얼굴들, 스스로 떠나게
의 개울소리에 밤해 진종일
끝까지를 누비던 일들, 더기
억할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동화책 표지에 있어서나 볼
수 있는 천민의 초원인 관
솔불같은 한 여름의 모닥불 —
어려서 행복하게 지냈던 장
소를 대하는 것과 같은 야
릇한 기대를 갖고 현실의 복
사판인 이미지를 얻어
왔읍니다.

정녕 원색인간이 되어가
고 있는 나로서, 내 따에 비
약적인 방법으로 사랑해버리
고 인간적인 착각으로 인해
지금도 어디서 온듯한 오고
얼굴들, 스스로 떠나게 되
는 責任에서 殺人女
는 심판대위에, TV
에서는 그 푸로그램
을 방영금지 시키고
급식제도를 폐지시킴
으로 모든 소란스런
일이 하루아침에 끝
난다고 믿고 있다.
우리는 이 殺人女로
심판하며 미워하기에
앞서 그녀를 그렇게
까지 하도록 만든 우
리社會의 責任을, T
V방영금지시키기 前
에 그 제작자들이 더
한번 어린이들을 위
한 생각을, 營利보다 어
른들이 사그러져 갔
다. 우리社會는 이 모
든 責任에서 殺人女
는 심판대위에, TV
에서는 그 푸로그램
을 방영금지 시키고
급식제도를 폐지시킴
으로 모든 소란스런
일이 하루아침에 끝
난다고 믿고 있다.
우리는 이 殺人女로
심판하며 미워하기에
앞서 그녀를 그렇게
까지 하도록 만든 우
리社會의 責任을, T
V방영금지시키기 前
에 그 제작자들이 더
한번 어린이들을 위
한 생각을, 營利보다 어
른들이 사그러져 갔
다. 우리社會는 이 모
든 責任에서 殺人女
는 심판대위에, TV
에서는 그 푸로그램
을 방영금지 시키고
급식제도를 폐지시킴
으로 모든 소란스런
일이 하루아침에 끝
난다고 믿고 있다.
우리는 이 殺人女로
심판하며 미워하기에
앞서 그녀를 그렇게
까지 하도록 만든 우
리社會의 責任을, T
V방영금지시키기 前
에 그 제작자들이 더
한번 어린이들을 위
한 생각을, 營利보다 어
른들이 사그러져 갔
다. 우리社會는 이 모
든 責任에서 殺人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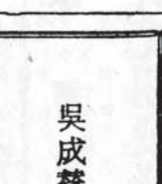
이영코너

시내버스

김 영 희 (미교·2)



모 영 삼 (국교·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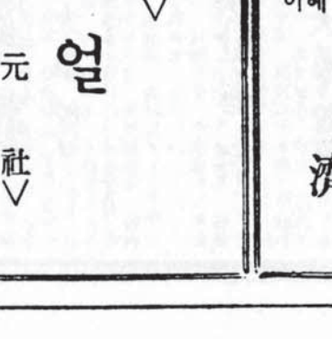
이 란은 생활주변의 일상문제를 놓고 남녀가 의견을 교환해 보는 지상토론입니다. 다음호 제목은 「도서관」입니다. 많은 투고(원고지 5매·사진)를 바랍니다.

천년을 산다

<연재소설>

이체련(수교·四)글
김현숙(미교·二)그림

<6>



JBS 2학기 방송프로그램 안내

	月	火	水	木	金	土
8:20 8:40	교향곡 안내		협주곡을 찾아		서곡 및 소품을 찾아	
8:50	용연의 노래					
8:55	오늘의 가곡					
9:00	교내 소식	교내 소식	수요 단상	오늘의 음악가	금주에 만난 사람	공지 사항
담당 ANA	박점복 영교2	황명희 미교1	강창효 일어1	이영철 영교2	이애련 관광2	강복진 국교2
P·D	김계홍(미교1) 문성왕(과교1)					

듣고 싶은 음악이 있을 때는 수시로 본 JBS로 오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學季刊誌>
文學과 知性
<文學과 知性社>
濟州道販賣書店 濟州書林 전화 ②7667

吳成贊著 <抒事的 濟州案內書>
濟州民의 얼
<創元社>

觀光의 濟州
吉聖運著

吉聖運선생께서 <觀光의 濟州>라는 책을 지으셔서 本大學觀光開發研究所에 1千卷을 기증해 주셨읍니다. 기증자의 뜻은 책의 판매대금을 奬學金으로 사용해 달라는 의도입니다. 그 뜻에 따라 本 研究所에서는 이 <觀光의 濟州>를 定價 800원이나 300원으로 염가 판매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선생의 의도가 잘 달성되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있기를 진심으로 빌며 이에 광고합니다.

1977년9월20일

濟州大學觀光開發研究所長

산악부 안내

본대학 산악부는 산을 찾는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14강의실옆에 산악부실을 개방 하였아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제반사항=단체 산행안내
산행에 관한 장비
산행시간
등산 COURSE 안내 등

개방시간=월요일~금요일
오전9시~오후5시 까지
토요일
오전9시~오후1시 까지

제주대학산악부장